



담양군 금성면에 문을 연 애견 전용 풀장에서 한 방문객이 데려온 골든리트리버 강아지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사람보다 낫네~ ‘상팔자 犬公’

주부 채운성(33·광주시 북구 각화동)씨는 최근 가족 휴가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 A애견호텔에 예약문의를 했다. 자신이 5년째 키우는 말티즈 한 마리를 맡기기 위해서였다. 올해는 예약을 못 했던 지난해와 달리 서둘렀기 때문에 안심하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

채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애완견을) 애견호텔에 맡기면 밥은 물론 운동, 목욕 등 각종 웰빙서비스를 다 해준다”며 “휴가를 가족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애완견도 호텔에서 나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년 애견호텔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7월~8월)을 맞아 광주지역 애완견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 주인과 함께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개들을 위한 전용 호텔이 성업 중이고 애견 전용 풀장까지 등장했다. 광산구 인근에는 애완동물 전용 화장장(火葬場)을 갖춘 장례식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9일 광주지역 애견숍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엔 모두 10여 개의 애완견 호텔이 있으며 하룻밤 숙박비용은 애완견 몸무게 등에 따라 2만~5만 원이다.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광주의 경우 애견호텔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비해 예약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실제 서구 포암동 M애견숍은 5kg 소형견(2만5000원)·5~9kg 중형견(3만5000원)·10kg 이상 대형견(5만원) 등으로 ‘견

애견호텔에 전용풀장 만끽 음악감상에 피톤치드까지 웰빙서비스 받으며 피서

공’ 몸무게 따라 1박당 숙박비를 매긴다. 이 업소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하루에 최대 5마리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다.

광주 M애견숍 주인은 “현재 광주엔 반려동물용을 위한 애견호텔이 매우 적다. 평소엔 일주일에 5~6건에 불과하던 예약문의가 현재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치평동 D애견호텔은 10kg 미만 기준 2만~2만5000원이며, 광산구 M애견숍은 2만2000원~3만5000원이다. 이들 애견숍은 이달 중순까지 예약이 거의 다 찬 상태다.

애견호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웰빙 먹거리와 음이온·피톤치드를 공급하고 케이지 없는 전용 객실을 갖춘 등 업체 간 서비스경쟁도 치열하다.

M애견숍은 털 관리·발톱정리 등 위생·미용서비스를 기본으로, 황태 가루를 곁들여 활태파우더·송아지·오리 목뼈, 상어껍질 및 연골 등 수제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D애견숍은 반려동물의 기본을 충개만 들어주는 음악감상실부터 음이온·적외

선·피톤치드·산소테라피 기능을 갖춘 드라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음이온 발생 공기청정기와 각종 놀이기구를 마련한 업체도 눈에 띈다. 최근 담양에 생긴 애견 풀장 F업체도 전국에서 애완견 동호회가 찾아오는 등 애견 휴가 장소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대형견 풀장에는 주인과 개가 함께 탈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도 조성해 놓았다.

수영 후 배가 고플 개들을 위해 1500원부터 3만원대까지 간식도 판매하고 있다.

대형견 기준 입장료·수영료·셀프목욕비를 합치면 6만7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말 평균 100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에는 애완견 화장 시설을 갖춘 애견 전용 장례식장도 들어서고 있다. 사업자 A씨는 광산구에서 운영해오던 애견 장묘 시설을 중단하고, 최근 올 연말 오픈을 목표로 또 다른 애견 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또 다른쪽에선 휴가철만 되면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버려 유기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휴가철 유기견 발생 횟수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공고된 유기견은 6월 90마리에서 7월 143마리로 약 58% 증가했다. /이충행기자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중앙선 침범 차량 상대 고의 사고내고 보험금 챙겨

광주서부경찰은 9일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범 최모(2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밤 10시5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오피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서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고모(여·59)씨의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자 고의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친구인 이들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씨에게 책임 추궁을 하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2회에 걸쳐 2400만원, 최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7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청년 버핏’ 박철상씨 전남대 장학금 어떻게

6억 기부 약정~6000만원 전담 주식투자 실제 수익 14억 고백

주식투자자 수백여원을 벌여 ‘청년 버핏’으로 불린 박철상(33·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사진)씨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퉁근 기부’를 해온 그는 전남대에도 5년 동안 6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약정, 이를 일부 이행했다.

박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주식으로 번 돈이 14억원 정도”라며 “400억원 자산을 (제가)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간 관련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다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재학중인

경북대에 1억원을 기부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대학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번 1000여만원으로 400여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각종 기부로 대학생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투자가 신모씨가 자신의 SNS에서 박씨에게 수익계좌를 보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실제 수익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와 관련, 9일 페이스북에 “이 모든 일은 저의 경솔함으로 인해 자초한 것”이라며 “그동안 말로만 겸손함을 떠들었지, 사실 온갖 걸치장과 같잖은 공명심에 취해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 티끌만큼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행위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씨가 기부한 장학금을 운용해온 전남대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지난 2월 전남대를 찾아 앞으로 해마다 1억2000만원씩 5년간 6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대는 지난 5월 2017학년도 1학기 ‘복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30명에게 200만원씩 6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약정한 금액을 보내와야 2학기에도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강인철 전 광주청장, 경찰청 방문 면담

경찰청 차장 “자중” 주문에 “부당한 부분 말했을 뿐”

광주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지시를 받았다(광주일보 2016년 11월 21일 6면, 8월 8일 1·6면)고 주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이 9일 경찰청에서 박진우 차장(치안정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장은 “국민과 직원들에게 우려는 주지 않도록 자중”을 주문했고 강 교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했죠”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 교장은 박 차장 요청으로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에 들어와 차장실에서 약 10분간 면담 후 돌아갔다.

박 차장은 강 교장에게 “본인의 징계 및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되, 최근 수뇌부 간 갈등으로 비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과 직원들에게 더는 우려를 주지 않도록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교장은 이와 관련, “그 취지에는 나도 공감하나 내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교장은 이번 SNS 건과 별도로 기존에 경찰청이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감찰 결과 강 교장이 의무경찰에게 ‘감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는 “감찰 내용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과장되거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했다”며 “내 감찰과 관련한 부분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이 청장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인 11월 자신에게 전화해 광주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집회 안내 게시물을 문제삼으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교장은 당시 게시물에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는 표현이 담겨 화제가 되자 이 청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나” 등 표현을 써 가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형호기자 khh@연남뉴스

영아유기 점유 20대 산모

또 신생아 유기하고 도주

영아유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0대 산모가 또다시 병원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났다.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산모가 신생아를 놓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산모 A(24)씨는 지난 7일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이날 오전 퇴원할 예정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3~7시께 신생아를 병원에 놓아둔 채 도망갔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에도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검거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술만 시킨다” 주인 핀잔에 주먹질

○~광주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는 주문하지 않고 술만 주문했다는 주인의 핀잔에 주먹질을 한 50대 손님이 경찰서행.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노모(53)씨는 지난 8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주인 이모(57)씨의 열구리를 자신의 팔꿈치로 수 차례 때린 뒤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

○~노씨는 고깃집에서 술과 달걀 프라이만 주문해 먹던 중 이씨가 “이 식당은 술만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식당주인의 말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내버스-승용차 충돌

1명 사망·10명 부상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모닝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시내버스 승객 등 1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9일 오후 3시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의 한 주요소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모닝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모닝차량 운전자 A(7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모닝차량 동승자 2명과 시내버스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왕복 2차로에서 서로 마주 보며 달리던 승용차와 시내버스 차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